

해남 출신 박경두 고향에 두번째 '金'

펜싱, 男 에페·女 사브르 단체전 '金'...아시아 동반 제패

한국 펜싱 남자 에페의 기동 박경두(30·해남군 정)가 고향에 두번째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박경두는 23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금빛 찰리'를 선보였다.

박경두는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정진선(30·화성시청)과 함께 선봉에 섰다. 권영준(27·익산시청), 박상영(19·한국체대)도 힘을 보탰다.

박경두는 세번째와 여섯번째, 8번째 주자로 나서 6점을 얻어 한국의 금메달을 견인했다.

박경두는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세번째 주자로 나서 4점을 추가, 베트남을 45-25로 꺾는데 힘을 보태며 결승행을 견인했다. 한국은 8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3-38로 따돌렸다.

한국 남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 2006 도하, 2010 광저우에 이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양궁의 이특영(25·광주시청)은 인천 계양 아시아드양궁장에서 열린 리커브 예선라운드 70m와 60m에서 각각 331점과 343점을 쏴 합계 674점으로 4위에 올랐다.

곡성 출신으로 대표팀 만인이 주현정(32·현대모비스)은 컨디션 난조를 겪으며 합계 651점을 기록해 17위로 처졌다.

대표팀 막내 정다소미(24·현대백화점)는 합계 683점(342, 341점)을 획득, 중국의 청밍(675점)과 수징(674점)을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

여자 리커브 양궁은 24일 30m와 50m 예선 라운드를 펼친 뒤 대진이 결정되면 25일부터 본선에 들어간다.

기대를 모았던 광양시청의 볼러 최복음(27)과 박종우(24)는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종우는 이날 경기 안양호계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볼링 개인전에서 6게임 합계 1269점을 획득, 6위에 그쳤다. 최복음은 3라운드부터 크게 흔들리며 200점 안팎을 기록하며 메달권에서 빛거나 14위에 그쳤다.

최복음과 박종우는 25일 2인조전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한다.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에 출전한 함평 출신 장대규(39·KB국민은행)와 나주 출신 김준홍(24·KB국민은행)은 첫날 각각 293점, 291점을 쏴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24일 단체전 및 개인전 결승을 치른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3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한국과 중국의 결승 경기에서 한국 마지막 주자 김지연이 금메달을 확정 짓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도 노메달 수도 끊겠다”

사재혁, 수술·재활 딛고 재기...오늘 85kg급 출전

한국 남자 역도의 간판 사재혁(29·제주도청)은 인천아시안게임 준비과정에 대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내게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목표는 금메달이어야 한다”고 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역도가 '노메달'의 수도를 겪고 있어 사재혁의 각오는 더 단단해진다. 사재혁은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달빛체육센터 역도경기장에서 열리는 남자 역도 85kg급에 출전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사실 예전에는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큰 부상과 긴 재활을 겪은 뒤 나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은 다르다.

홍천고·한체대 시절 어깨·무릎·손목 등에 네

차례 수술을 받은 사재혁은 2007년 6월 왕중왕 대회에서 합계 362kg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남자 역도의 희망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에서 인상 163kg·용상 203kg·합계 366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사재혁은 어깨 부상으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77kg급 경기 중 팔꿈치가 탈구되는 불운을 겪었다.

다시 수술대에 오르며 “이제 역도를 포기해야겠다”고 은퇴까지 생각했던 그는 재기에 성공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사재혁은 올해 체급을 85kg으로 올렸다. 이 체급에서 사재혁의 공식 최고 기록은 인상 166kg·용상 202kg·합계 368kg이다. 하지만 최근 훈련 때 훨씬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연합뉴스

홍콩 밀집수비 뚫고 8강 간다

축구대표팀 내일 16강전

28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이광중호가 8강 진출의 고비에서 홍콩을 상대로 화끈한 골판치를 준비한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홍콩과 2014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16강전을 펼친다.

태극전사들이 상대해야 할 홍콩은 조별리그 B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해 '다크호스'로 인정을 받고 있다.

홍콩은 조별리그에서 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과 1-1로 비긴 데 이어 아프가니스탄(2-1승)과 방글라데시(2-1승)를 잇달아 격파하고 조 2위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나란히 2승1무였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조 2위가 됐다.

홍콩이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지만 상대한 팀들의 전력을 보면 이광중호가 그리 걱정할 전력은 아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이광중호는 조별리그에서 측면 날개 윤일록(서울)이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아예 빠졌고, 김신욱 역시 조별리그 2차전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력 누수가 생긴 게 걱정이다.

더불어 홍콩의 사령탑은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에서 수석 코치와 감독 대행 맡았던 김만근 감독이다. 한국 선수들을 잘 아는 만큼 이광중호

로서는 만만하게 상대할 팀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홍콩의 '밀집수비'를 뚫는 게 과제다. 약팀들이 강팀을 상대할 때 가장 유용한 전술은 무승부로 버틴 뒤 승부차기를 노리는 것이다. 홍콩 역시 '선수비-후역수'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이광중호의 공격진들은 두터운 수비벽의 뒷공간을 노리는 기동력이 필수다.

이광중 감독은 홍콩전에 김신욱을 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강전부터 김신욱을 활용하기 위해 부상 치료의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의도다. /연합뉴스

오늘의 아시안게임 (24일·수)

- ▲체조=양학선(한국체대) 개인전 마루, 링 결승(19시)
- ▲볼링=이영승(한국체대) 여자 개인전 스쿼드 B(14시30분)
- ▲사이클=나아름(삼양사) 여자 울니업(16시)
- ▲사격=장대규(국민은행)·김준홍(상무) 남자 25m 속사권총 본·결선(9시)
- ▲야구=조별예선 한국-대만(18시30분·선발 양현종)
- ▲핸드볼=남자 본선 한국-사우디아라비아(16시) 여자 예선 한국-중국(18시)
- ▲하키=여자 예선 한국-일본(19시)
- ▲배구=남자 예선 한국-대만(19시30분)



최복음의 역투 23일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볼링 남자 개인전에 최복음(광양시청)이 투구를 하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